

“주권 넘보는 행위 단호하게 응징”

고성군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회 발대식 ... 공동대표 선출 · 향후 활동방향 논의

고성지역 사회단체들이 속초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구 급감과 지역상권 붕괴로 고성군을 몰락시키는 시군 통합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3면>

또 고성지역 주민들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역사와 정통성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고성군의 주권을 넘보는 무례한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성지역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고성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시군 통합 반대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공동대표 선출과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시군 통합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최진선 고성군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은 이덕용 고성군시장단협의회장의 경과보고,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장 인사말, 이영일 고성군변영회장(임시의장) 인사말에 이어 △공동대표 선출 △집행부 구성 위임 △향후 발전방향 논의 등의



지난달 30일 열린 '시군 통합 반대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통합반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순으로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이영일 고성군변영회장, 이덕용 고성군시장단협의회장, 이행관 고성군재향군인회장, 김영희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등 4명이 만장일치 추대했다. 또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고성군의회 의원 가운데 1인이 공동대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장은 “고성군은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남북고성과 연결돼 있는 지역으로, 속초의 통합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6.25 전쟁 후 조상들이 간성군이라고 하지 않고 고성군으로 한 것은 통일된 후에 북고성을 합쳐 진정한 고성군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다.

이영일 고성군변영회장은 “고성군은 산불과 태풍 피해속에서

도 국회의정연수원 유지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속초시에서 통합 추진으로 우리와 오랜 동반자 관계를 저버린 것은 불행의 시작으로,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고성군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일천삼백년의 역사와 정통성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시군 통합되면 속초시의 틀러리로 전략하게 되고, 혐오시설만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결사반대한다 △인구 급감과 지역상권 붕괴로 고성군을 몰락시키는 시군통합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 △고성군의 주권을 넘보는 무례한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등 4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광호 기자



대대리포사격장 이전 합의 5면

고성군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인 대대리 포사격훈련장 이전 문제(본지 29호, 30호, 33호 보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포 사격이 시작된 1980년 이후 32년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